

numbers 제 21호



주요 내용

2019. 11.06

1.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개신교인 평가 및 교회의 사회적 통합 기능
2.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1)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2)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 평가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최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개신교인의 평가 조사 결과(기독교사회연구원)가 발표돼 인구에 자주 회자되었다. 그 결과를 보면 개신교인의 13%가 전 목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고령층의 중직자 층에서는 25% 안팎의 높은 긍정 평가를 보였다. 25%가 적은 수치일지 몰라도 교회의 리더십 그룹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한국 교회가 이념적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21호에서는 ‘이념적 갈등 속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갈등 구조에서 빠져나와 사회적 통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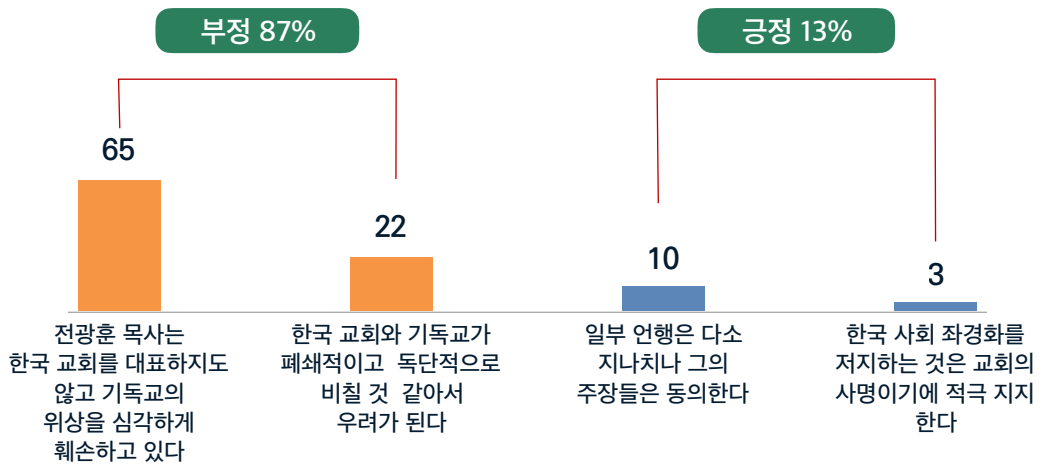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한기총 전광훈 목사, 최근 언행 관련 개신교인 평가, 긍정 13%, 부정 87%

- 대부분의 개신교인들(87%)은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긍정적 평가자는 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전광훈 목사 최근 언행에 대한 개신교인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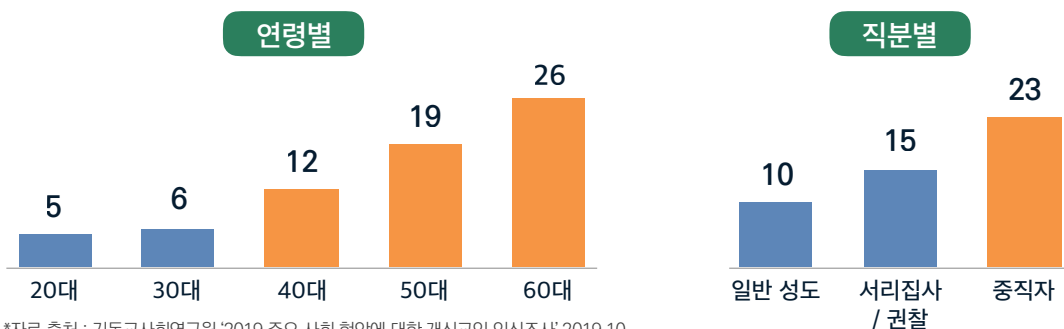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독교사회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19.10.
 ** 조사 개요 :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7, 지앤컴리서치

● 교회의 리더십 층인 중직자의 4명 중 1명 끝은 전 목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이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교회내 이념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 목사에 대한 평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 평가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40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함
- 교회 리더십 그룹인 중직자의 23%가 전 목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교회 내 영향력을 감안하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과 이념적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전광훈 목사 최근 언행에 대한 개신교인 평가(긍정 평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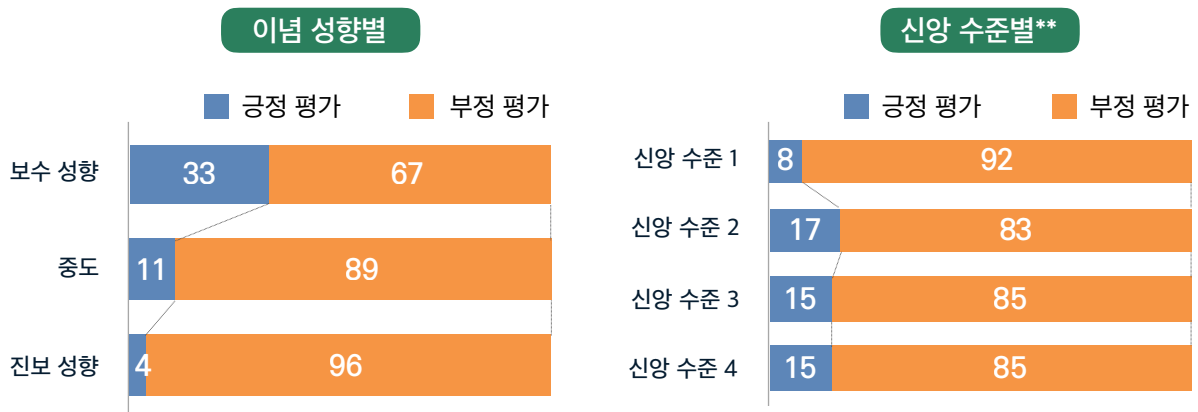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독교사회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19.10.

● 보수 성향의 개신교인, 전 목사 긍정 평가 33%

- 이념 성향 별로 살펴보면, 보수 성향의 개신교인은 전 목사에 대해 3명 중 1명 꼴로 긍정 평가를 하고 있고, 진보 성향의 개신교인은 4%만 긍정 평가를 함
- 신앙 수준의 높고 낮음이 전 목사에 대한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림] 개신교인의 전광훈 목사 계층별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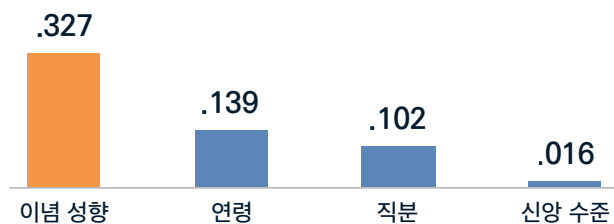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독교사회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19.10.

** 신앙 수준 1: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른다.
 신앙 수준 2: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위해 여러 가지 일을 고 있다.
 신앙 수준 3: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신앙 수준 4: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 전 목사 평가는 이념 성향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반면, 신앙 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전 목사에 대한 평가와 이념 성향, 연령, 신앙 수준, 직분과 각각 상관도(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 목사 평가에 이념 성향(상관도: 0.327)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음으로 연령, 직분, 신앙 정도 순으로 나타남
- 전 목사 평가와 신앙 정도는 그다지 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전 목사 평가와 각 요인 간 상관도(Correlatio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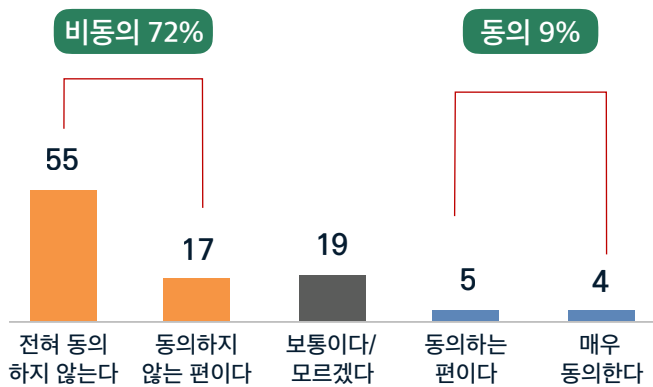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독교사회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19.10.

** 상관계수는 P < 0.01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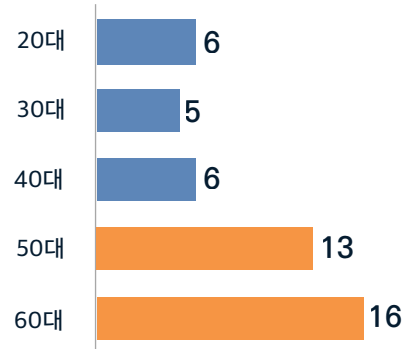
● 전광훈 목사의 '문 대통령 하야' 발언 : 비동의 72%, 동의 9%

- 전 목사의 '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개신교인 10명 중 7명 정도(72%)가 동의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8%는 동의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그림] 전광훈 목사의 '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개신교인의 동의 여부 (%)



[그림] 연령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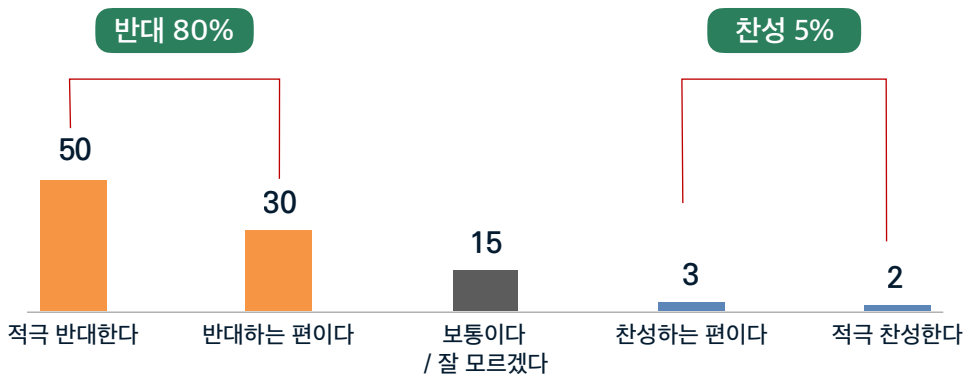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독교사회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19.10.

2

기독교인의 '기독교 정당 창당 → 정치 참여', 반대 80%

- 대부분의 개신교인들(80%)은 기독교의 '기독교 정당 창당 → 정치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비율은 5%로 나타남

[그림] 기독교인의 '기독교 정당 창당 → 정치 참여'에 대한 찬반 (%)



*자료 출처 : 기독교사회연구원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19.10.

앞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인식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교회는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의 고연령/중직자 층과 진보 성향의 저연령/일반 성도 층으로 나뉘어 교회 밖 사회와 동일하게 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개신교인 중 자신이 접촉한 혐오 표현 중 정치적 반대자에게서 들은 비율이 54%나 되고, 교회 내에서 목사/교역자에게서 혐오 표현을 들은 비율이 67%나 된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이념적 갈등이 이미 만연해있다는 증거이다(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제 19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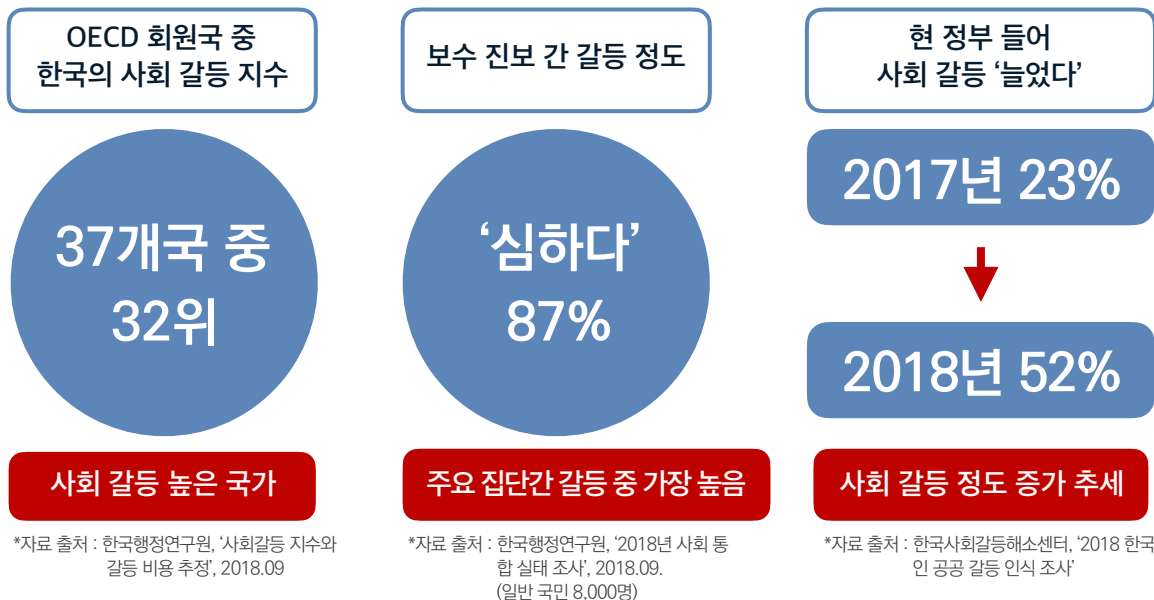
종교사회학자 이원규 교수(감신대)는 종교의 역할에 대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에서 벗어난 ‘사회 통합의 기능’과 정치가 사회에 희망을 주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예언자적 기능’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몇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3 한국은 현재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에 놓여있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 갈등 지수가 하위권으로 갈등이 심한 국가 군에 속해 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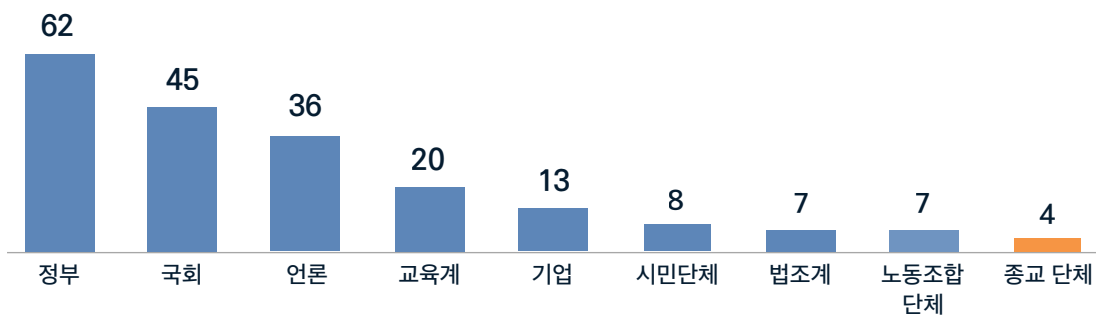
[그림] 사회 갈등 관련 주요 통계 자료



4 우리 국민, 사회 통합 주체로서 종교 기관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 않음

- 우리 국민은 사회 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 제시된 주요 기관 중 ‘종교 단체’를 가장 낮은 4%로 응답했는데, ‘노동조합 단체’ 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임
- 이는 ‘종교 단체’의 사회 통합 기능에 대해 기대와 관심이 없다는 의미임

[그림]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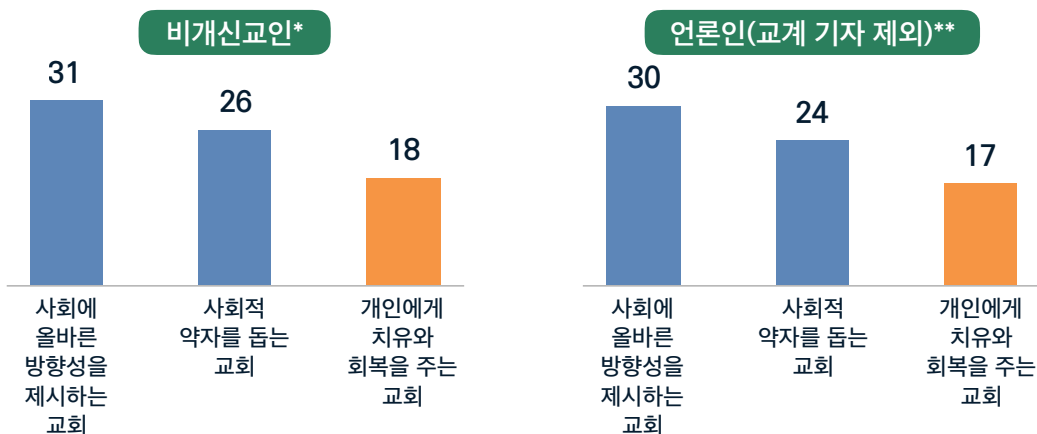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9.

5 그러나 비개신교인들은 한국 교회에 바라는게 있다면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길 요구하고 있음

- 비개신교인들은 바람직한 한국 교회의 미래상에 대해 전통적인 역할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보다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를 더 바라고 있음. 이와 같은 인식은 언론인들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상위 3위)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비개신교인 1,000명, 2017.11.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언론협회, '한국 교회에 대한 언론인 인식 조사', 언론인 225명, 2016.11.

6 목회적 제언

한국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갈등이 뜨겁다. 주말이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반대 진영에 대한 날선 언어들도 난무한다. 이 극심한 갈등의 한가운데로 뛰어난 대표적 인물이 전광훈 목사이다. 그는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008년 기독교사랑실천당을 창당하여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개신교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의 언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13%이며 기독교 정당에 찬성하는 비율이 5%에 그친다는 것을 보면 일과성 사건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동의 혹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은 28%나 되고, 기독교 정당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포함하면 20%가 잠재적인 우호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평가를 보수 성향의 개신교인에 국한해서 보면 33%의 긍정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교회 지도 그룹이 대개 고연령의 보수적 성향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회 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공존함으로 성도들 간에 이념적 갈등이 내재돼 있음이 오늘의 한국 교회 현실이다.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 현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갈등의 종재자가 되어야 할 종교가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됨으로써 종교의 가치와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사회학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는 '통합' 기능이다. 사회적 통합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갈등, 그것도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소인 정치적 갈등을 증폭하는 당사자로 나선다면 이는 교회에 대한 외부의 굵지 않은 시선을 모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한쪽에서 배척당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둘째는 교회 내 갈등이다. 우리 사회는 50대를 중심으로 그 위 세대는 보수, 그 아래 세대는 진보로 구분된다. 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보수적 장년 그룹이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한다면 교회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젊은 층이 교회를 외면할 수도 있다.

전광훈 목사의 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환호 혹은 경멸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했듯이 전 목사 긍정 평가와 신앙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자신의 이념과 다른 그룹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보수 성향의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 '잘한다' 16%, '잘못한다' 81%였고, 진보성향의 국민은 '잘한다' 75%, '잘못한다' 21%였다. 정치적 이념으로 국민들이 지나치게 나뉘어 있다는 극명한 예이다. 교회는 젊은이와 노인,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부자와 가난한 자,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모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다. 교회는 한국 사회 통합 기능의 최후의 보루이다. 한국 교회의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청년층 이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과 결혼, 주거, 출산 등을 포기하고 '이번 생은 망했어'(이생명)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그들의 삶은 딱딱하다.

이러한 교회의 청년들을 품고 가려면, 이들을 더 이상 이탈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기성세대가 무엇이 통합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종교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사회적 주체로서 통합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회 내부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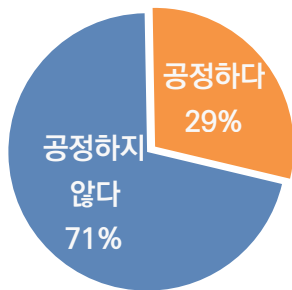
이번 호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코너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 평가와 국제 환경 속에 한국의 스탠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함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한국 사회, 공정하지 않다, 71%

- 최근 문화일보와 한국사회학회가 함께 실시한 ‘한국사회 공정성 연구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들은 한국 사회의 연고 중시, 금수저론 만연 등 불공정성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



[표] 항목별 한국 사회 평가(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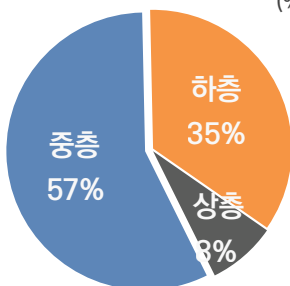
항목	그렇다 (%)
• 우리 사회에서 중요 사안이 결정 될 때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	83%
•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	76%
• 성공할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고 있지 않다	68%
• 최근 6개월간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며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75%

*자료 출처 : 문화일보, 한국사회 공정성 연구조사, 2019.10.31.~11.01.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0.25~27, 칸타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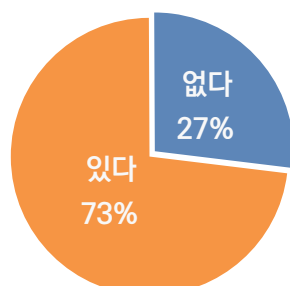
2 한국인 3명 중 1명 이상, 스스로 ‘하층’이라 인식

- 한국인의 35%가 스스로 ‘하층’이라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중산층이 헐거워지고 있고, 중산층으로 계층이 상승하는 기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4명 중 3명 가까이가 하층 추락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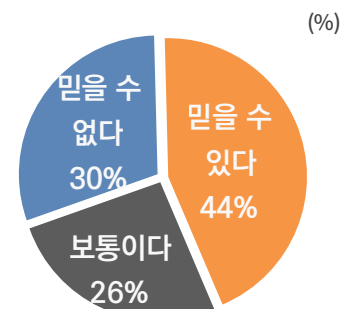
[그림] 주관적 사회 경제적 위치 (%)



[그림]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 (%)



[그림] 한국 사회 신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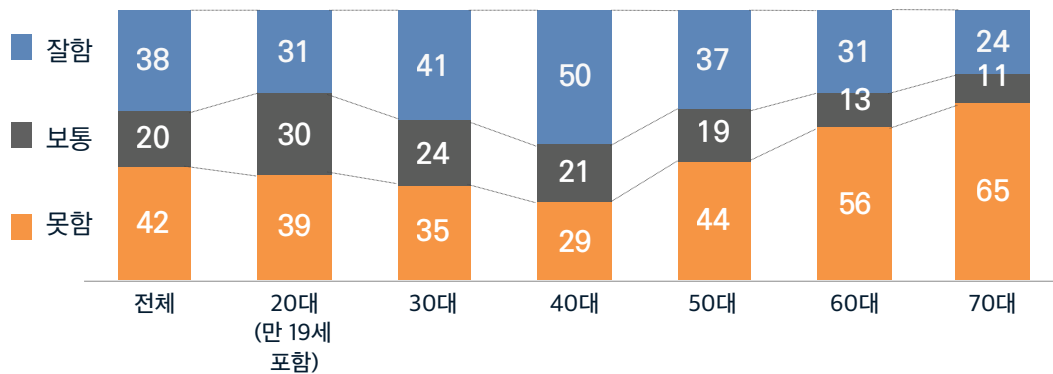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문화일보, 한국사회 공정성 연구조사, 2019.10.31.~11.01.

3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잘못했다’ 42%, ‘잘했다’ 38%

-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 보다는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 30,40대 연령층은 긍정 평가가, 20대와 50대 이상 층은 부정 평가가 각각 높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가(10점 만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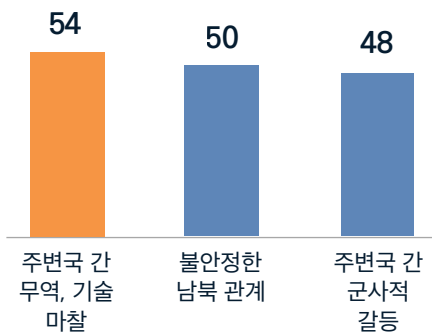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文외교안보 성적 4.6점... ”미중 충돌 때 중립 지켜야“ 70%(동아시아연구원,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 온라인조사, 2019.10.)
<https://news.joins.com/article/23623898>
 **잘함 : 6-10점, 보통 : 5점, 못함 : 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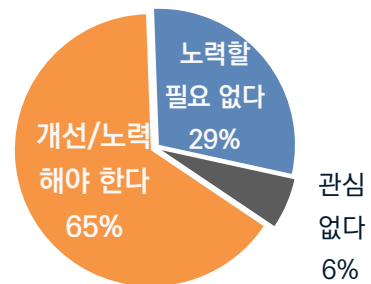
● 한국의 당면 위협 요인으로 ‘군사 안보’보다 ‘경제 위기’를 더 위중하게 인식

- 한국의 당면 위협 요인으로 ‘주변국 간 무역, 기술 마찰’(54%)을 ‘주변국 간 군사적 갈등’(48%)보다 더 높게 응답함
-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개선/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3명 중 2명 꼴임

[그림] 한국의 당면 위협 요인(중복 응답, 상위 3위) (%)



[그림] 향후 한일 관계 대응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文외교안보 성적 4.6점... ”미중 충돌 때 중립 지켜야“ 70%(동아시아연구원,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23898>)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고령층 자영업자의 위기](#)

매일경제 _ 2019.11.04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18% 늘었지만 대부분 음식업·소매업...실패확률 높아”



[유선에서 무선으로](#)

중앙일보 _ 2019.11.02

“선’을 없애라...청소기는 기본, 전기차 무선 충전도 넘본다”



[‘2019 국제 인구 학술 대회’가 주는 저출산 경고](#)

경향신문 _ 2019.10.28

“2045년 한국 ‘자녀·부부 가족’ 16%뿐...노동 인력은 250만 명 이상 감소할 것”



[영화, <82년생 김지영>](#)

조선일보 _ 2019.10.25

“여자는 9.5점 vs 남자는 1.7점 ‘82년생 김지영’ 갈린 평점 싸움”



[우리나라 국민, 건강 상태 변화 통계](#)

연합뉴스 _ 2019.10.27

“[여자 흡연율 2017년 6.0%→2018년 7.5%...20년來 2번째로 높아](#)”

세계일보 _ 2019.10.28

“[男 비만 늘고 女 흡연 증가... ‘건강 빈부 격차’도 더 커져](#)”

스토리가 있는 기사



[2020년 트렌드는?](#)

매일경제 _ 2019.10.30

“2020 외로움을 팔아라”



[여행의 목적](#)

동아일보 _ 2019.10.30

“여행을 ‘배워서’ 갈 수 있을까?”



[작은 것에서 행복 찾으며 살기](#)

중앙일보 _ 2019.10.

“이국종의 고백 ‘나는 항상 우울하다, 그래도 그냥 버틴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대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 대표 지용근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재) CBS | 한용길 사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 김지철 이사장

한국교회탐구센터 | 송인규 소장

(재) 한빛누리 | 김형국 이사장

(주)지앤컴리서치

MOU 기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후원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KB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문의: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